

- 주요 뉴스: 미국 7월 PCE 물가, 전월비 상승 예상. Nvidia의 분기 실적 발표 등에도 관심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근거 부족.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캐나다, 對美 보복 관세를 대부분 철회. 철강 관세는 25% 유지
 - 일본은행 총재, 노동력 부족한 가운데 임금상승 지속. 추가 금리인상 신호로 해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고평가 우려 속 금리인하 기대 증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1.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연준에 대한 트럼프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시사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7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4% 하락, 한국 CDS 하락

	8/22일	8/15일	전주말대비		8/22일	8/1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466.9	6,449.8	+0.27%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32%	-6bp
	유럽	561.30	553.56	+1.40%		독일	2.72%	2.79%	-7bp
	중국	3,825.8	3,696.8	+3.49%		영국	4.69%	4.70%	-0bp
	일본	42,633	43,378	-1.72%	CDS 5y	한국	19bp	21bp	-2bp
	한국	3,168.7	3,225.7	-1.76%		중국	42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7.72	97.85	-0.14%	위험 지표	EMBI+	345	334	+11bp
	유로화	1.1718	1.1703	+0.13%		VIX	14.22	15.09	-5.77%
	엔화	146.94	147.19	+0.17%	WTI유	63.66	62.80	+1.37%	
	위안화	7.1675	7.1845	+0.24%	원자재	구리	445.9	449.3	-0.75%
	원화	1,383.5	1,389.5	+0.43%		금	3,371.9	3,336.2	+1.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PCE 물가, 전월비 상승 예상. Nvidia의 분기 실적 발표 등에도 관심

- 8/29(金)에 7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공개.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해당 지표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오름세 강화(2.8%→2.9%)되고, 월간 상승률은 보합(0.3%→0.3%) 예상.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연간 및 월간 상승률 모두 전월과 동일한 수준(각각 2.6%→2.6% 0.3%→0.3%)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 만일 연준이 물가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 물가지수(연간)가 예상대로 7월에 2.9%를 기록하면,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로 금리인하 기대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 아울러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관세비용 소비자 전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사안
- 이에 일부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와 고용보고서가 9월 금리인하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Bloomberg Economics).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말에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Wells Fargo). 현재 CME의 FedWatch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9월과 12월, 각 0.25%p)를 예상하고 있으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84%로 평가
- 한편 27일(水)에 발표될 Nvidia의 2/4분기 실적에도 관심이 집중. 이는 최근의 AI 산업 및 관련 기업 주가의 버블 논란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시장에서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각각 461.3억달러, 1.01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각각 300.4억달러, 0.68달러)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일부에서는 회사 측의 3/4분기 실적 전망 안내가 시장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매출 역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한다고 분석(Keybanc)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가구에도 관세 부과할 방침. 반도체 업체의 지분 확보 의지도 피력

- 트럼프 대통령은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내에 가구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입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급. 아울러 최근 인텔에 대한 보조금 제공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고 첨언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9월 금리인하 판단 위해 추가 데이터 필요

- 무살렘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에, 금리 관련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 아울러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평가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관세를 통해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 4조 달러(기초 재정수지 적자 3.3조달러, 이자 0.7조 달러)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근거 부족.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현재 역내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으며, 추가 금리인하를 위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과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자크스 위원 역시 지금은 관망이 적절한 시기이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 피력

■ 캐나다, 對美 보복 관세를 대부분 철회. 철강 관세는 25% 유지

- 캐나다 카니 총리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철회하며, 미국과 다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자유무역을 재개한다고 언급. 다만, 미국 조치에 맞서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행 관세(25%)를 유지한다고 첨언

■ 일본은행 총재, 노동력 부족한 가운데 임금상승 지속. 추가 금리인상 신호로 해석

- 우에다 총재는 자국 내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이며, 이로 인해 임금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평가
- 한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은 재무성이 '26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장기 국채금리 전망치를 2.6%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이는 전년(2.1%) 대비 높은 수준이며, 17년 만의 최고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5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및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독일 8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금융시장의 파월 의장 연설에 따른 금리인하 확신, 보다 균형적인 접근 필요 - 블룸버그**
(Powell's Nuance Was Lost on Markets. Too Bad)
 -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고, 금융시장은 9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인식. 이에 S&P500지수는 상승했고, 주요 국채금리가 하락. 하지만 이번 발언에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정책적 균형을 모색하기 원한다는, 미묘한 뉘앙스가 내재
 - 실제로 파월 의장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까다로운 이중 책무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를 상회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안정이 약화된다는 징후도 발생.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진 방향(preset course)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의가 요구
- **미국의 신규 고용 정체, 지속될수록 경제 위험 증가 및 연준의 불안 초래 - WSJ**
(Stagnant Job Market Is a Rising Risk for the U.S. Economy)
 - 노동시장은 낮은 실업률과 기존 고용 유지 등으로 낙관적으로 평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신규 고용 둔화라는 불안 요인도 존재. 신규 고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고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시작되기 때문. 연준의 파월 의장 역시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노동시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 일부는 신규 고용 부진을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이미 기업의 신규 고용 속도는 둔화. 이는 팬데믹 직후 과도한 고용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지금 당장 노동시장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저조한 신규 일자리 증가는 연준의 불안을 초래하기에 충분
- **중국의 주가 상승세, 경제 불안 미반영 등으로 지속성에 의문 - 블룸버그**
(Bubble Risks Grow as China's Stock Bull Run Defies Economy Angst)
 -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 소비 둔화, 디플레이션,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상해종합지수는 10년래 최고치를 경신. 이는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로 추정
 - 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고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내수 부진으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한다면 강세장 지속은 불가능(Lombard Odier). 아울러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2.1조 위안으로 버블 붕괴 직전 '15년 최고치인 2.3조 위안에 근접) 및 정부의 신중한 경기부양책 접근 등은 주가 상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신흥국 투자, 선진국의 재정 지배 우려 등으로 관심 증가할 전망 - Financial Times**
(Fiscal dominance and the unexpected rise of emerging markets)
 -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음의 다양한 이유로 신흥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 첫째, 과도한 달러화 자산 보유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및 정치적 개입 심화 등으로 미국 예외주의 후퇴. 둘째, 달러화 약세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 셋째, 신흥국 통화 강제로 해당 중앙은행 통화정책 유연성 확보. 넷째, 미국 대비 저평가된 증시
 - 다섯째, 미국 등 주요 경제국의 재정 우위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통제력 약화 우려. 여섯째, 신흥국 전체 평균의 2배에 근접한 미국의 높은 부채 비율(GDP 대비 120%). 일곱째, 향후 2년간 MSCI 신흥국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양호한 주당순이익 성장을 전망. 여덟째, 신흥국 통화 강제를 통한 추가 수익 이점 등
- **연준의 독립성 추구, 트럼프가 지명하는 차기 연준 의장에는 기대안 - Financial Times**
(Brace for the Fed's Maga makeover)
- **대중영합주의, 모든 국가에서 부채 증가성장 둔화 등의 피해 초래 - Financial Times**
(Beware populist economics)
- **미국의 주요 AI 기업 투자, 고평가매출 둔화 등으로 주의 요구 - Financial Times**
(Is it time to sell your AI stocks?)
- **미국 증시 투자자, 매도 확대 직면한 대형 기술주 이외의 종목을 주목 - Financial Times**
(Investors look to S&P's 'forgotten 493' stocks as megacap tech wobbl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